

투데이 칼럼

K-문화 본향 전북의 문화 생태계 복원, 소공연장 활성화에서

최 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의 문화 분야에 대한 의정 활동이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제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문화 생태계의 근간인 민간 소공연장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해서 주목받았다.

박 의원은 전 도민이 문화예술과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는 스스로를 K-문화의 본향이라 브랜드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역 예술 생태계는 여전히 취약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자료는 지역 민간 공연장의 열악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2024년 기준 전북자치도 내 민간 공연장은 총 28곳인데, 이 중 좌석 수 100석 미만의 소공연장이 18곳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운영의 구조적 한계다. 대부분의 민간 공연장은 대표 혼자서 운영은 물론,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외로운 공연장 대표의 고군분투는 지속 가능한 공연 프로그램 개발과 안정적인 관객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공연장 운영 자체를 매우 버거운 일로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만들고 있다.

박 의원이 지적했듯이, 민간 공연장의 위기는 단순히 그동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곧 지역 예술의 다양성을 축소시키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 지역 예술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는다면, K-문화의 본향이라는 브랜드는 공허한 허구호에 그치게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전북자치도는 선진국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하듯, 민간 공연장을 문화적·경제적·사회적 가치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박 의원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서 우리는 그의 제안에 주목하게 된다.

첫째, 민간 공연장의 전문성과 운영 안정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공연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

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기획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통해 지역 고유의 예술 콘텐츠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지역민의 특수성을 가진 공연을 통해 관객을 불러 모으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정체성이 우리의 후손에게도 이어지게 할 것으로 본다.

셋째, 민간 공연장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온라인 홍보 및 예매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효율성과 대중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협력과 통합 시스템 구축은 민간 공연장들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관객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민간 공연장 활성화는 예술계 내부에만 국한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청년 예술인과 문화 전문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나아가 관광객 유입과 주변 상권 활성화까지 연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 인프라 투자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

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김관영 지사가 취임 초기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력 양성, 창작·제작·유통·문화 향유 등 전 과정이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기억하고 있으며, 공약 실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박정규 의원의 이번 5분 발언은 이 약속을 이제는 실천할 때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본다.

전북자치도는 민간 소공연장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박정규 의원이 촉구한 바와 같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역 예술 생태계의 다양성을 복원하고, 전 도민이 문화예술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는 곧 K-문화의 본향,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메가 강 감독이 만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한편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문화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서 전 국민이 환호하고 있다.

우리 고장 전북에서 케데헌에 이어서 제2 제3의 후속작이 연이어서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길이 소공연장 활성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지나친 발상일까 하고 생각해 본다.

사설

임팩트포프 동호회 후원 물품

전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팩트포프 동호회(회장 한태성)가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서서화동)소재 엘림노인복지센터에 방문하여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임팩트포프동호회는 2016년에 창단하여 2025년에 창단 10년자를 맞이하고 있다. 이 동호회는 건설업 대표들과 전문 직업을 가진 30여명의 회원이 인복과 사회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별도의 정기회비 외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심시일반 모은 기부금을 연말에 정산하여 불우이웃 돕기에 해마다 동참하고 있다.

엘림노인복지센터(장현미 센터장)는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서서화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전문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센터를 운영하며 “취약계층에 놓인 많은 어르신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회원들의 따뜻한 온정이 어려운 이웃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태성 동호회장은 “연말 연시를 맞아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가치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작은 성금이지만 좋은 곳에 전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연말을 맞아 따뜻한 이웃 사랑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엘림노인복지센터의 이웃사랑 실천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내란 1년여 전 부터 실시한 대북전단 살포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1년여 전에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군심리전단이 지난해 최소 23번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실시한 사실이, 국방부 내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국방부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북전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모두 23번 살포됐다. 살포 작전은 국군심리전단이 실시했고, 표적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다.

대북전단 살포에 관련된 부대들은 매달 정기 보안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작전 관련 기록을 삭제했다. 합참에선 대북전단 작전 관련 문건을 일괄 남기지 말라는 지

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장관이 국군심리전단에 적려금을 지급하며 대북전단 작전을 독려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신원식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적려금 200만 원을, 이후 취임한 김용현 전 장관도 지난해 10월 적려금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남측이 대북전단을 먼저 날렸다고 항의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남측에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어, 대북확성기 방송, 휴전선 인근 실사격훈련 등을 재개했다.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한 2023년 10월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내란 특검이 특정한 시기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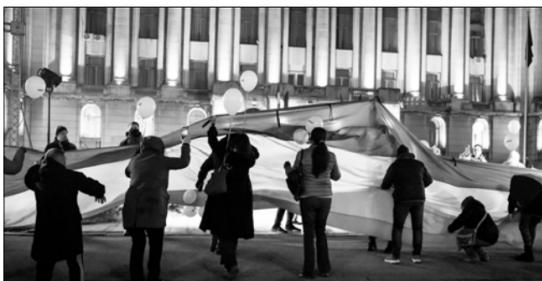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밝은 표정으로 달리는 산타들



21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산타클로스 달리기 대회가 열려 산타 복장의 참가자들이 웃으며 달리고 있다.

혁명 36주년 기념하는 루마니아 사람들



21일(현지 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루마니아 혁명 36주년을 앞두고 '영웅들의 행진' 행사가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대형 국기를 펼쳐 들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